

정가 라운지

##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57억 삭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윤식)는 14일 포뮬라원(F1)대회 경주장 진입 도로 건설 등을 위한 707억 원의 지방세 발행 등을 포함한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도에서 요청한 5조2천46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도 지자·군 순회 방문시 견의사 업지원 예산 44억 원 등 57억 9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소득원 발굴사업 8억 원 등 20억 8천500만 원을 증액했다.

##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14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5년에 지자체가 도입된지 14년째를 맞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의회 “5·18노래 철회를”

○…광주시의회는 14일 국가보훈처의 ‘5·18노래’ 제정 방침과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5월의 노래 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5월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그날의 합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히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채택해 부른 기념곡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하는 5월의 노래 공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남구 구금고 논란 확산

○…광주 남구 구금고 신정과 관련, 황일봉 남구청장이 ‘금고지정심의위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의위원인 광주 남구의회 신인용·유정심 의원과 세무사 김만곤씨는 14일 남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심의위원들이 월권·부당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배점기준 변경 논란에 대해 “변경이 아닌 결정이었다”며 “이는 심의위 재량사항으로 지난 2007년에도 심의위에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 여성과기인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양예령 의원(민주·동구1·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bckjw@

## 호남권 미래 성장산업 1,800억 투입

## 산업지원단, 태양광·광융합 등 67개사업 추진

광주시와 전북도, 전북도로 이뤄진 ‘호남광역경제권’이 모두 1천8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 광융합 등 67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호남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은 이 같이 선도산업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16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호남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 킷 오프(Kick Off) 및 활성화 워크숍’을 갖는다.

확정된 67개 과제는 태양광 18개, 풍력 11개, 광융합 20개, 전기자동차 18개 등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는 기업체 120곳, 교육·연구기관 50곳 등 모두 170개 기관이다.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금호전기, 솔라월드 코리아 등 18개 업체, 서남해안 풍력산업 협력구조사업에는 두산중공업, 해원에스티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주요 사업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고효율 태양전지 소재개발·태양 전지용 자재개발·서해 적응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친환경 부품 소재(광기술 기반 융합조선 기자재 개발·친환경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 등이다.

지원단은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1천800억 원을 투입해 이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출 120억 불, 고용창출 3천여명 목표를 달성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또 사업기간 동안 연구결과를 상용화하고 기술 사업화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이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관계자는 “선도산업과 관련해 세부사업 계획, 참여기관 등의 최종 확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번 행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기업, 출연기관들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



13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밀라노에서 유세 도중 군중 속에서 있던 마시모 타르타글리아가 던진 조각상에 얼굴을 맞아 이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집회 참석’伊 총리 성난 시민에 봉변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자에 의해 얼굴을 맞고 피를 흘리는 봉변을 당했다.

목격자와 경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날 밤 밀라노 광장에서 젊은 시위자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졌으며 입술에서 피를 흘린 채 병

원으로 실려갔다고 전했다.

총리의 한 보좌관은 수천명의 시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마친 베를루스코

니 총리가 상처 치료를 위해 급히 승

용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베를루스코니 총

리가 보좌관들의 부축을 받고 옮겨지

는 장면을 방영했다.

극우파 북부동맹의 당수이자 베를

루스코니 총리의 가까운 맹방인 움베

르토 보시는 “그들이 총리하게 한 짓은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한 청년이 베를루

스코니 총리의 안면을 때렸다고 밝혔

다가 나중에는 그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리에게 물건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

다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 “문화제도시 광주 만들겠다”

정동재 전 장관, 광주시장 출마 첫 공식 선언



정동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광주를 창조적 문화제도시로 건설하겠다”며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정 전 장관이 처음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문화를 살찌우는 창조적 문화제도시로 광주를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준비해왔다”며 “문화와 관광,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창의적으로 연결해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둠구장 건립과 관련해 “둠구장이나, 개방구장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둠구장과 신도시 개발이 문화중심도시 개발 계획과 상충하느냐 조례를 이루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광주공항은 존속시키는 게 좋지만 만약 이전한다면 군사공항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 광주 출신인 정 전 장관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3선 국회의원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angju.co.kr

## “압류 北 무기에 조기경보기 타격 미사일”

## 뉴욕타임스 보도

태국 정부가 북한 무기 운송 혐의를 포착해 억류한 그루지야국적의 수송기에는 이른바 ‘공중조기경보기 카리’로 불리는 미사일이 실려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태국 언론들이 보도한 사진에는 태국 정부가 북한 무기 수송기의 화물칸 사진을 살펴본 미국의 무기 전문가 말을 인용, ‘K-100’이라고 쓰인 상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미뤄 이 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 타격용 미사일인 K-100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군사전문업체 ‘글로벌시큐리티’의 미사일 전문가 찰스 P. 빙 연구원은 NYT와 인터뷰에서 상자 위의 표식들이 정확하다면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조기경보기 타격용 미사일인 K-100일 것이다.

한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태국 정부의 북한 무기 압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고도 공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행정만족도 ‘우수’

광주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올해 1월1일~10월30일까지 시민 2천77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윤영기자 penfoot@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